

한국채란업, 식란위주의 소비패턴에서 벗어나야...

본고는 한국채란업 현황 파악차 지난 20일 본회를 방문한 Rich Wall씨(H&N International사의 미국 및 아시아 지역 판매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정리 / 김동진 기자



△ Rich Wall 이사(H&N International사의 미국 및 아시아 지역 판매담당)

△ H&N International사 소개와 방문목적은?

Rich Wall = H&N International사는 지난 1945년 독일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닉칙이라는 상품명으로 백색계는 물론 갈색 산란계를 탄생시켜 보다 많은 계란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육종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아시아 등 전세계에

지점을 두고 마케팅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닉칙브라운의 생산능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 보다 많은 농가에서 닉칙을 애용할 수 있도록 아시아 등에 홍보코자 방문하였습니다.

△ 아시아 지역의 활동상황은?

Rich Wall =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면서 아시아 시장이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본사의 판매 성장율이 65%이상이나 증가되는 등 급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한국에는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않고 있으나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우리 품종이 많이 알려졌으며, 사육하는 지역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공란 소비비율이 40%를 웃

돌면서 1인당 계란소비량이 347개로 우리에게 매우 비중있는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경우도 가공란 소비비율이 10%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계란소비 잠재력은 무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국 양계산업을 보고 느끼신 점은?

Rich Wall = 저는 1년에 2~3차례정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한국 양계산업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계란생산량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소비분야 등 전반적인 면에서는 과거와 큰 변동이 없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공란 소비가 아직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식란위주의 소비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들로서도 무척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에 계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흥미로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이와같은 일을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의 양계산업 현황은?

Rich Wall = 미국의 채란업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지금부터 5~6년 전인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후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큰 성장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1인당 계란 소비량이 235개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컸으나 최근에는 260개로 큰 폭 상승했으며, 최근에도 상당량의 계란이 생산되어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소비가 따

라주면서 양계산업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장은 미국계란협회(AEB) 등 관련단체에서 지속적인 계란우수성 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각종 세미나를 통해 계란내 콜레스테롤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고, 각종 요리 개발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침식사 대용으로 전자레인지 이용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즉, 피자나 빵과 같은 롤 속에 계란을 넣어먹는 멕시칸 스타일이 무척 인기가 있을 정도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개에 130원(1.3\$/12개)정도 하고 있으며, 요드란과 오메가3란 등 특수란이 일반란 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인기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SPF란, 위생란 등도 꾸준히 생산되면서 소비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한국시장 진출계획은?

Rich Wall = 한국경제 사정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국에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산란계경제능력검정에 해마다 출품하여 낙착에 대한 품종의 능력을 평가받고 있으며, 그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성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한국에서 언제든지 협력사가 나온다면 손을 잡고 영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계**